

전라도 사투리 모음집

땅골 흑룡띠생



소개글

여기에 전남 사투리 모음집을 만들어서
잊혀져 가는 사투리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일부 퍼온 글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자신의 글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거나, 자신의 글을 추가 하시고 싶은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려진 글은 절대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도 할 수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드레그 및 복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단어 종합모음	4
2	단어 구분모음1	31
3	유머 모음	34
4	짧은문장 모음	36
5	단문 모음1	38

단어 종합모음

2012.02.09 14:32

[단어 종합 보기/](#) [단어 구분 보기/](#) [단문 보기/](#) [유머 보기/](#) [장문 보기/](#) [속어\(욕\) 보기](#)

떠온글 : 출처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실제)

전라도 사투리 (단어)

[XXXX]: 표시는 별교 지역 추가

가

가리메 : 가리마

가꼬 : - 가지고

가꼬다 : 가꾸다.

가나그 : 계집애

가넵하다 : 감추다.간섭하다

가는귀목다 : 가는귀먹다

가래 : . 삽. 땅을 파고 흙을 뜨는데 쓰는 제구.

가랭이 : 가랑이. 다리 사이

가레 : 가래. 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

가리 : 가루

[가리]:나머지

가리나무 : 갈비. 솔가리

가마떼기 : 가마니[가만떼기]

가매 : 가마.

가상 : 가장자리

가새 : 가위[가시개]

가스나그 : 여자 아이. 나이 어린 여자.[가시랑년]

가시내. 가시네. 가이네 : 처녀. 친구나 동급의 여자.

가실하다 : 가을걷이하다

가심 : 가슴. 몸통의 앞쪽 상반부. 배와 목 사이에 있는 부분.

가심팍 : . 가슴통. 가슴 앞쪽의 전부. .가슴 둘레의 크기.

가이내 : 가시내 . 친구나 동급의 여자.

가직한: 가까운[가차운]

가직허다 : 가깝다. 가직한 점빵언 없다?

가참다 : 가깝다.

각다분하다:일감 정리모양

각단지다 :정리가잘되었다)

각단지다. 각다분하다 : 정리가 잘 되다.

간나구 (명) : 간나위. 간사스런 사람.

간텅이붓다:겹이없다

간짓대:장대, -긴대나무

[갈 랑께] ; 가 버릴테니

[갈보] : 속어(바람둥이 여자)

갈이 : 계산. 정리

갈쿠 : 갈퀴[갈키]

[감똥] : 감꽃

감자. 감재 : 고구마[하지감자]

갑다 : -가 보다.

강단지다 : 야무지다. 일잘한다.

강생이 - 강아지[깡아지]

개개:가십시오[가시시오]

개기다 : 가시다. -싸쌀 개깁시다이.

개기다. 배기다 : 버티다.
 개택이:고양이
 [개동백나무] : 녹차나무
 [개꽃] : 산 철쭉
 개떡:밥위엿어만든빵[밀가루떡 총칭]
 개롭다 : 가렵다
 개리다 : 가리다. 좋지 않다. -날이 개러가고 우짤랑가.
 개리다 : 치르다. -기 개린디 오꺼시오.
 개리다 :가리다
 개리키다 : 걸리적거린다
 개린다 : 가리다. 선택하여 피하다.
 개롭다. 개볍다. : 가볍다
 개안하다 : 시원하다[개젓하다]
 [개와]호주머니
 [개작기] : 놀이의 일종
 개지름: 얼굴에 번질번질하게 끼는 기름.
 개포래 : 이끼
 개뿔하다 : 가뽏하다.
 [개찬다] : 괜찮다
 갠치다 : 가르치다
 갠감. : 산감보다 약간 더 큰 감.
 갠물 : 강물
 갠생이끼다 : 어울릴 자리가 아니데 어울리게 되다
 갠신 : 몸을 가누는 일.
 갠아지 : 강아지
 [갠조개] : 조개 총칭
 거러지 : 거지
 거렁뱅이:거지
 거무 : 거미
 거이, -거시 : 것이
 [거진] : 거의
 거짓깅 : 거짓말
 거튼, -겅은 : -같은
 건더꿀 : 대충
 건드렁하다 : 거만하다
 건사하니:근사하게
 [건성] : 대충
 [겅다] :젓다
 겅개 : 반찬
 게라 : -에 안 그런게라
 겅치, 기연치 : 기어히[기연치]
 겅물 : 허드렛물[깅물]
 겅통 : 씩크대 구실을 하던 대야
 고겅 : 그것
 고기 : 거기
 [고둥] : 다슬기
 고라고, 그라고 : 그리고
 고라재마는, 그라재마는 : 그렇지만[그러재마는]
 고람 : 그러면
 고런 : 그런
 고리탐탐하다 : 고리타분하다
 고상 : 고생.
 고쟁이, 꼬쟁이 : 여자 속 바지
 [고치] : 고추
 [고치장] : 고추장
 곱간:곱식창고
 곱마리 : 허리춤
 [곱망태]: 곱 망태기
 곱펜 : 볼펜
 [곱탱이] : 미련하고 느린

공구리 : 콘크리트
 공구리다:단단히 다지다
 공연시 : 공연히[맬겁시]
 과실 : 과일
 괴기,개기:고기
 괴비 : 주머니
 괴비:호주머니
 핑기하다 : 신기하다.
 구덩이. 구텡이 : 구덩이
 구더리 : 구더기
 [구들구들]:옹기 종기
 구랭이 : 구렁이
 [구르마] : 달구지/손수레
 [구르무] : 로션
 구리구리허다 : 퀴퀴하다
 구석:귀퉁이
 구석대기 : 귀퉁이
 구시 : 구유. 먹이그릇
 구신 : 귀신
 구지다 : 좋지 않다. 나쁘다.
 구진것:나쁜 것
 구찮다. 구찬타 : 귀찮하다
 국끄럭 : 국그릇
 [국시] : 국수
 군동네 : 군내.
 군지 : 그네
 굴 : 고을 (광산)
 굽도리 : 방 모퉁이[굽더리]
 궁근다:뒹굴다
 궁댕이 : 궁둥이. 주저 앉으면 바닥에 닿는 아래부분.
 귀도볶다:잘 듣는다
 귀뚝 : 굴뚝
 귀뺑매기 : '귀싸댕이' 좀 던 적대시하여 사용 하는 말
 귀싸댕이. 귀싸대기 : 뺑. 귀에 가까운 뺑.
 귀영차:귀퉁이
 귀탕이 : 귀퉁이
 꿇구녁: 꿇구녕 : 꿇구멍
 꿇구녕:꿇구멍
 [그나마] : 그래도
 그댁찮다 : 대수롭지 않다
 그라드라도 : 그형더라도
 그란디 : 그런데[그런디]
 그람시로:그렇게 해놓고[그럼시롱]
 그람시롱. 그람시로 :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그러코롬:그렇게
 [그럭] : 그릇
 그럼사 : 그렇다면
 [그렇게] : 그러니까
 그르다 : 틀리다
 그르트다 : 어렵다. 경우에 맞지 않다
 그패 : 글피
 근다고 : 그런다고
 근지롭다 : 간지럽다
 근지막 : 간지럼
 근천스럽다 : 웅색하다
 근천시럽다 :웅색하다
 글먼 : 그러면
 금메. 콤메 : 그래. 어쩐지. 글썸
 금불 : 군불
 궁께. 그랑께 : 그러니까

기 : 계.
 [기] : 계
 기경:구경
 기다 : 그렇다. 옳다 -기냐? 아니냐?
 [기대면] : 긴
 [기동차] : 디젤 기관차
 기둘리다. 지다리다 : 기다리다[기달리다]
 기리다 : 그리다
 기림 : 그림
 기별 : 기별
 기언치. 기언시. 견치. 견씨 : 기어이
 기영코. 경코 : 기어코
 [기저구] : 기저귀
 길초 : 길목. 길 입구.
 까끔 : 산
 까끔살이 : 소꿉놀이[빠끔사리]
 까마구 : 까마귀
 [까불다] : (챙이로 까불다:키로 골라내다)
 [까시] : 가시
 까시락 : 가스랭이
 [까장] : 까지
 까죽 : 가죽
 까지 : 가지
 [깍] : 짹
 깍데기:깍두기
 깍때기 : 박스. 두툼한 종이.
 깍닥깍닥 : 천천히 걷는 모양
 깍치 : 까치
 깍치발 : 깨금발. 발 한 쪽을 들고 섬, 혹은 그 모양.
 깔 : 꼴. 낮으로 뻗 풀.
 깔끄막 : 가파른 곳.
 깔따구 : 여자 친구를 낮추어 지칭하는 말
 [깔따구] : 하루살이 곤충
 [갈치] : 갈치
 감밥 : 감부기.
 감밥 : 누룽지
 깨구락지 : 개구리
 깨벗다 : 발가벗다.[깨덩이 벗다]
 깨뽕이. 깨뽕 : 소나 염소를 묶어두는데 쓰는 말뚝
 께탕. 깨당 : 알몸.[깨덩이]
 께박질. 깨금박질 : 한 발로 뛰기. 양감질
 께발. 깨금발 : 한 쪽 발을 듦. 혹은 그 모양.
 께매기 : 께과리
 께이 : 께이
 [꺼끄름한] : 꺼림직한
 꺼덕대다 : 까불다
 꺼마다 : 까맣다
 꺼무튀튀하다. 꺼머튀튀하다 : 거무스름하다
 꺼생이. 지렁이 : 지렁이
 꺼정 : -까지
 꺼정. 까장 : -까지
 [깨롱] : ~니까(그런깨롱~:그러니까~)
 께정 : 걱정
 [뀨정하다] : 크다(키가 킨정하다)
 [께떡대다]:요리 저리 살피며 덤비다
 께덕 : 께질 (-윤재평님 소개로 올림)
 [께] : 말의 끝에 주로 붙임(그랬당께)
 께감. 께감 : 께감
 께구래다 : 구부리다[께부리다]
 께구래불다. 께굴새불다 : 구부려버리다

꼬꼬비 : 꼼꼼하게
 꼬꼼하다 : 깐깐하다. 인색하다
 꼬꼼쟁이 : 인색한 사람
 [꼬나보다] : 겉 눈질로 유심히 쳐다보다
 꼬라지:보기싫은모습,성질
 [꼬락서니] : 모습
 꼬랴다 : 골이 났다
 꼬랑 : 작은 개울.
 꼬랑내 : 고릿내
 꼬랑지:꼬리
 꼬랑창 : 하수가 흘러나가는 개울.
 꼬막 : 고막
 꼬방 : 광
 [꼬부정] : 구부정
 꼬불차불다 : 몰래 감추다.
 꼬뽕이 : 고뽕
 [꼬사리] : 고사리
 꼬소하다. 꼬습다 : 고소하다
 꼬시랑 : 투덜거린
 꼬시랑내 : 무언가가 탈 때 나는 냄새
 [꼬장] ; 심술
 꼬쟁이 : 송곳을 닮은도구
 [꼬치] : 고추
 [꼬치] : 속어(어린남자 성기)
 꼭감(긋감)
 끈 : 발기. 균형을 잃지 않고 힘있게 서 있는 모양.
 [끈] : 말판놀이(돌에 그려서)
 끈다 : 골이 나다
 [끈다] : 꼬다(새끼줄을 꼬다)
 끈대 : 골통. 우두머리
 [끈대] : 아버지 혹은 남자 어른
 끈대기 : 번대기[뽀대기]
 끈보 : 뼈치기를 잘 하는 사람
 끈서다 : 발기하다. 균형을 잃지 않고, 힘있게 서 있다.
 끌랑지. 꼬랑지 : 꼬리
 끌창 : 골짜기
 꼼짝 할 수 없어: 둘 사이로 들어가 박히다.
 꼼차불다 : 감추어버리다
 꼼치다 : 감추다
 꼼발 : 모듬발[곤두발]
 콩 : 팥
 [꽃기] : 농게
 콧 : 고아[고다 : 콧 풀이다]
 [콧다] : 꼬다(새끼줄을 콧다:꼬다)
 켜이 : 켜이
 꾸꿈스러운: 남이 관심두지 않은 것을 행기다.
 꾸래미 : 꾸러미
 [꾸들장] : 구들장
 꾸중물. 꾸정물 : 구정물. 뜨물[꾸중물]
 꼬나다. 꼬은하다 : 뽀하다
 꼬내기 : 노끈의 일종[꼬내기]
 꼬댕이 : 꼴. -콧 기양 멀꼬댕이럴..
 꼬럭 : 그릇[그럭]
 꼬렁. 끌당 : 그루터기
 [꼬슬름] : 그을름
 꼬시랑치 : 지렁이
 끈타불 : 끈.[꼬나풀]
 끌낫 : 장대 끝에 낫을 매달아 만든 낫
 끌텅 : 뿌리
 끌텅. 꼬렁 : 그루터기

[꼭꼭하다] : 약간 젖어있다/약간 그렇다
끼내나가다 : 나가다
끼대. 깨대 : 나무라거나 닦달할 때,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
끼대들오다 : 들어오다
끼래붙다 : 맞추다. 떨어 내다.
[끼레붙다] : 열어 버리다(열쇠를 끼레붙다)
끓다 : 끓다
끓이다 : 끓이다[끼리다]

나
[나가기]: 더 없다?
나락:벼
나래지어:빨리지어
나무새:나물[놈새]
[나발때기] : 쓸데 없는 소리
나빠때기. 낫바때기 : 얼굴[나빠닥]
나사지다 나차지다. 야차와치다 : 낮아지다.
나사지다. 나서지다 : 나아지다. 좋아지다.
[나이타] : 라이터
나참게. 야참게 : 낮게
낙낙하다. 낭낙하다 : 넉넉하다. 여유있다.
난닝구 : 러닝셔츠
[날개] : 이엉
날래 짓다. 나래 짓다 : 빨리 짓다.
날래. 나래 : 빨리.[핑]
날차분하다 : 날이 가는지 모른다.
남사스럽다. 남새스럽다 : 남 보기에 부끄럽다.
남지기. 남치기 : 나머지
납뽕닥 : 낫. 낫바닥.
낭구 : 나무
내비두다. 내빌라두다 : 내버려두다.
넌중 : 나중
넵두다 : 그냥 두다.
넵두시오:그냥두시오
넵뒤야:그냥두어라
냉갈. 맹갈 : 연기
냉갈통 : 연통
냉개놓다 : 남겨 두다. 남겨 놓다
낙까. 니아까 : 니어커. 손수레
[너도구] : 대보름 인사말(?)
넉 : 넋. 혼
넉나갔다 : 혼나갔다
넉넉하다 : 여유있다
넉출:영쿨 : 넉쿨[넉꿀]
넬 : 관
넬루다 : 넓다[넬롭다]
넬판때기 : 넬빤지. 판자
넬. 놈 : 남
넬턱치 : 넓적다리. 오금 윗마디의 다리.
넉출:넉쿨
넬 : 열
노두:징검다리[징금다리]
노름쟁이. 노림쟁이 : 노름꾼. 투전꾼
노물. 노무새. 나무새 : 나물
[노지]. 노두 : 징검다리[농사 짓지 않는 땅]
노푸란질 : 오르막길[노푸막길]
[노푸막] : 높은
논꼬랑:논구렁
논수밭 : 남새밭. 텃밭[놈새밭]
[놈사스럽게] : 남에게 부끄럽게

낚 : 날일꾼. 뜻앗이 형태의 일꾼까지 뜻함
 낚사다 : 일꾼을 구하다
 [누리끼리 한] : 누르스름 한
 눈구녕 : 눈구멍. . 눈동자.
 눈깔 : 눈동자
 눈탱이 : 눈두덩. 눈 언저리의 두툼한 부위.
 [누] : 누에
 [누] : 쌀 속에 남은 벼알갱이
 느거메, 늑어매 : 너의 어머니
 느그 : 너.
 느러지다:여기저기 널려있는모양
 느자구 : 버릇. 씹
 느자구 없다 : 버릇없다. 가망없다.
 [느작생이 업시] : 경우없이
 늘품있다 : 더 나아질 가망성이 있다.
 늘핀하다 : 늘편하다
 능갑다 : - 는가 보다
 능겨 : -는가
 [능금] : 사과
 능마요 : -는구만요
 니나다 : 니가 나다
 니라고 : - 디아지 잡니라고
 니미, 네미 : 너의 어머니.(나쁜의미)
 니빠 : 니퍼
 니야카:리어커
 니약니약하다 : 서두르지 않고 너무 여유를 부리다.
 닐 : 일
 닐곰 : 일곱
 닛 : 넷

다
 다구지다:똑똑하다
 다따 : 닿다
 다라, 다라이 : 대야. 흔히 고무대야를 뜻함
 다라지다, 달아지다 : 닿다
 다랑치 : 다랑이
 [다래끼] : 메고 다니는 대 바구니
 다마 : 전구, 당구공, 구슬치기하는 구슬
 [다비] : 양말(일본어 인듯)
 다써 : 다섯
 다썰 : 닷새
 단도리하다 : 단속하다,준비하다
 [단쑤시] : 사랑수수
 달갈 : 달걀[달알]
 달게다 : 달래다
 [달구새끼] : 닭
 달롱개 : 달래 (식물)
 달르다 : 다르다
 달머리 : 달무리
 [논 달방] : 작은 논
 달부다, 달브다 : 다르다.
 [담] : 다음
 담바꿀 : 달음박질, 달리기.
 담박질 : 달리기, 달리기 시험
 [담배한참] : 담배 한개비 피울 시간
 당각 : 성냥
 [당께] : ~었다
 당글게:재를끓어내는기구
 [당나귀] : 당나귀
 당당 : 아직도 상당히 -당당 멀었다

당 마요. : - 단 말이요
 당아 : 아직
 당체 : 도대체
 대 : 발정기[암내]
 대그빡 : 사람의 머리.[대가리]
 대꼬(데리고)
 대끼 : -듯이
 대나다 : 발정기가 되다.
 대나무 몇 개를 천장 근처에 매달아서 만들었음.
 [대대하다] : 도도하다
 대루, 대리미 : 다리미
 대림질 : 다리미질
 대부치다 : 교미하게 하다. 교미를 시키다.
 대빡 : 사람의 머리.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대빡] : 바가지
 대야지:돼지[두아지]
 대야지개기:돼지고기
 대통 : 대나무 통
 [댄통] : 아주(많이)
 댐배 : 담배
 댐태기 : 덤터기
 댐대, 댐대 : 오히려
 댐개가다 : 다녀가다
 댐기다 : 다니다
 댐기다:당기다
 더끄다 : 더다
 더터가꼬, 더터갓고 : 더듬어서. 더듬어가지고
 더트다 : 더듬다.
 덕석 : 멍석. 짚으로 새끼 낳을 싸서 엮은 큰 자리.
 덜 : 들 사람덜이 고람 못 써.
 뎌대:오히려
 도구대:절구공이
 도구통 : 절구통
 도라고 : 달라고
 도라꾸 : 짐차, 화물차
 도람통 : 드럼통
 도롱태 : 굴렁쇠
 도리방석 : 둥근방석
 도장밥 : 인주
 도채비 : 도깨비
 도채비불 : 도깨비불
 도치 : 도끼
 독, 도팍 : 돌.
 [돈부채 꽃] : 칸추리 꽃
 돈산다 :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든다
 돌라가(묵다) : 훔쳐가 (먹다)
 돌이바꾸 : 놀이의 일종
 돌쪼구 : 문 경첩
 동각 : 마을 회관
 동낭치, 동낭치 : 거지
 동내안암팍:동리남자아녀자들
 동낭치:거지
 동우 : 동이
 돼다 : 힘들다.
 돼다:힘들다
 돼야지:돼지
 되나케나, 도나케나 : 아무렇게나
 [되다] : 뻑뻑하다(죽이 되다)
 되었다. 되아따 : 되었다. 되다.
 되작되작 : 부분 부분을 뒤집어서

되작되작 : 차근차근
 [두루미]: 학/ 황새
 두루박 : 두레박
 [뒤뚱] : 뒷동산
 [뒤안] : 뒷뜰
 드라냐 : -더냐
 듬봉 : 작은 연못
 등걸 : 작은나무 뿌리
 [등선] : 능선(산)
 [등때기] : 등줄기
 디게 : 몹시, 매우
 디끼다 : 책장 등을 넘기다. -콩깍지 뒤집어놓다.
 디다보다 : 들여다보다
 디아지, 대아지 : 돼지
 디아지개기, 디아지괴기 : 돼지고기
 [디지게] : 아주 많이
 디지다 : 죽다
 디치다 : 데치다
 디키다 : 소리가 들리다.
 딴꼬, 데꼬 : 데리고
 딜이다, 디리다 : 들이다
 딜이다:들이다
 딜키다, 디키다 : 들키다
 덩구랭이 : 천천히
 따대긴다 : 여러말한다.
 따르다 : 다르다
 따뻑 : 듬뻍, 가득
 따순밥 : 따뜻한 밥
 따습다 : 따뜻하다
 [딱나무] : 딱나무
 땀 : 다른[따른]
 땀 집 : 다른 집.
 팔리다 : 달리다. 부족하다.
 팔싹허다 : 달싹하다. 조금 떠들린 듯하다.
 땀 : 땀, 땀장
 땀새, 땀새 : 때문에
 땅땀하다 : 알아내다
 때기 : 지우개
 때기치다 : 팽개치다
 때까우, 땃까우 : 거위[때거위]
 때갈 : 모양.
 [때꺼리] : 끼니
 때알 : 딸기
 때우다 : 메우다. 땀질하다. 값다.
 [때작때작]:다닥다닥
 [때짱] : 똥장(잔디)
 땃가우:거위
 땀싸크다 : 매우크다
 땀개 : 당겨
 땀개불다 : 던져버리다
 [땀뻗] :똥약뻗
 [땀깡 부리다] : 짜증내다
 [땀땀이] : 수업 앓고 몰래 빠짐 (수업 땀땀이)
 떡 : 떡, 떡호에 붙이는 말. -수동떡.
 [떼] : 도(웃 놀이)
 떼꼼자구 : 떼
 떼작떼작 : 누덕누덕, 무슨 일을 벌리고만 만 모양
 또가리 : 또아리
 또랑 : 도랑
 [톨감] : 작은 종류의 감(장두감:큰감)

툄치다 : 앞지르다
 [퉁그란] : 퉁그란(둥근)
 퉁작퉁작 : 무언가를 먹기 싫어서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
 뚜깡 : 뚜깡[뚜깡이]
 뚜드래서, 뚜드러 : 두들겨서
 뛰다 : 맞붙다.
 뛰적이다. 띁적이다 : 뒤적이다.
 뜨광하다 : 마땅하게 여기지 않다
 퉁금웁다 : 느닷없다. -퉁금없이 뵤 일이까이
 띁놓다 : 띁어놓다
 띁다 : 띁다
 띁치다 : 띁치다

라
 라 : 요. (라우의 변이형) -내가 무다라 가라?
 라우 : 요. - 인자사 온다고라우?
 라이 : 요. - 인자 조간 있다 가시겟재라이.
 랑가 : '라우'허소체. - 글먼 자네가 그 돈은 돌려 줄랑가?
 렐 : 를. - 띁 방도렐 해 봐야지라이

마
 마구 : . 막. 아무렇게나 지은 집.축사
 마까대기 [-때-] : 막대. 막대기. 가늘고 기름한 나무나 대의 토막.
 마느레. 마누레 : 마누라
 마느레:마누라
 마동 : - 마다
 막가지 : 막대기
 막보기 : 마지막인양
 만나다 : 만나다.
 말기다 : 말리다. 못하게 하다.
 [말이시] : 말인데(그런게 말이시~: 그러니까 말인데~
 말래 : 마루. 방과 동일한 공간에 배치 되어 있는 마루.
 말록 : 말뚝
 망웃 : 두엄. 퇴비. 썩힌 비료.
 [망태] : 짚으로 엮어 만든 자루
 매누리. 매놀아그 : 며느리
 매똥 : 산소(묘)
 매롭다 : 마렵다
 매물 : 매밀
 매시랍다 : 솜씨 같은 것이 깔끔하고 숙련되다
 맥질 : 매흙질. 벽 거죽에 메흙을 바르는 일
 맨맛허다. 맨맛하다 : 만만하다
 맨사댕이 : 맨몸. 알몸.
 맨키로. - 맹키로 : - 처럼
 맬 : 멸치
 맬갑시:이유없이[맬겍시]
 맬 : 마음
 맬생이. 맬생이 : 염소
 맬닐 : 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맬둥 : 묘
 맬년 : 명년
 맬지베 : 명주베
 맬키로 :-처럼
 머꺼붙다 : 멈추어 버리다. 정지하다
 머끄다 : 서다. 멈추다
 머땀세 : 뵤때문에
 [머리크락] : 머리카락
 머스마:총각
 머스마그 : 나이 어린 남자. 남자 아이.
 [머시라?] : 뵤라고?

머시매, 머스마 : 머이매, 친구나 동급의 남자.
 머이매 : 머시매, 친구나 동급의 남자.
 먼침 : 먼저
 멀 : 머리
 멀고랭이 : 머리채
 멋이야:똥!
 멍치다 : 더럽히다
 [메수다] : 메꾸다
 멤생이:염소
 먹 : 미역
 [먹] : 목욕
 [명] : 목화
 명념하다 : 명심하다
 명지베:명주베
 모가지, 목아지 : 목
 모구 : 모기
 모냥 : 모양
 모다:모두다
 모두발 : 모듬발
 모랭이:모통이
 모르다 : 마르다
 모새, 모사 : 모래
 모시래, 모실 : 마실[모시]
 모욕 : 목욕, 물놀이
 모지락시럽다 : 모질다
 모지래다:모자라다
 모지리 : 바보, 반편이
 모탱이 : 모통이
 모트다 : 모으다
 [모 하나?] : 뭐 하나?
 목간 : 목욕
 목심 : 목숨
 문랭이 : 꼭대기, 정상
 문차 : 먼저
 문차도:만저도
 물:랴다 : 물랐다, 모르고 있었다
 물똥허다, 물뚝허다 물뚝잡다 : 못마땅하다
 몰라서:말려서
 물랴다 : 말랐다
 [몰랑 몰랑] : 물렁 물렁
 몰랑하다 : 만만하다, 아무지지 못 하다.[몰강]
 물려불다, 몰키다 : 몰리다
 몰르다 : 모르다.
 몰쌍하다:만만하다
 몰악시럽다 : 인정 없다
 몰강하다 : 물렁물렁하다, 무르다
 몽랭이 : 몽둥이
 몽라:고집
 [무강] : 고구마 순을 길러낸 뿌리
 무너나다:물러나다
 무다 : 뭐, - 무다, 가부렇다고야?
 무담시 : 괜히, 공연히[무단시]
 무서버 : 무서워
 무서짐스로:무서워지면서
 [무수와서] : 무서워서
 무시 : 무우
 무신 : 무슨
 무작시럽다 : 무지하다, 가차없다, 대단하다
 무참주다 : 무안을 주다
 [묵] : 먹(글씨 쓰는 먹)

묵근다:묵다
 묵다 : 먹다.
 묵사지:복사지
 묵자 것 읊다 : 먹을 만한 것이 없다. 먹을 만한 량이 없다.
 문. 먼. 뉘 : 무슨. - 문 일어나?
 문대다 : 문지르다
 [문맹이] : 문둥이(나병 환자)
 [문아케] : 대문간
 [문저리] : 망둥어
 문지 : 빈대떡. 부침개[부철이]
 물겐 : 물건.
 물동우 : 물동이
 [물방거리] : 물 방앗간
 물래 : 마루.
 물르다 : 무르다.
 물방애쓸. 물방애간 : 물방앗간
 물조리 : 물뿌리개
 물팍 : 무릎
 뉘뉘새:뉘뉘문에
 원수:무슨수
 [미깡] : 미끼
 미꼬미 읊다 : 가망 없다. 절망스럽다
 미꾸넉. 밑구넉 : 밑구멍
 미꾸락지 : 미꾸라지.
 미영. 명 : 묵화
 [미카] : 힘 약한 증기 기관차
 [믹국] : 미역국
 민애 : 민어
 [밀깡] : 굴
 [밀뺑] : 멸방
 밍직허다 : 밍살스럽다.
 밍가다 : 밍지다

바
 바가치 : 바가지
 바끄럭:밥그릇
 [바구] : 바위
 [바구리] : 바구니
 [바꾸] : 바퀴
 [바지기 작떼기] : 지게 버팀목
 반디 : - 군데. -곳. -고거 살라고 니반디나 가봤는디
 반또막. 반뚜막. 반돈박 : 절반 (대개 옛처럼 긴 물건의 절반)
 반틀 : 절반 (넓이. 량)
 발구락[-꾸-] : 발가락. 발의 맨 앞에 다섯 개로 갈라진 짧은 가락.
 발구락지 [-꾸-] : 발가락이나 발가락과 잇대어 있는 부분.
 발그잡잡:벌건얼굴
 발꾸락:발가락
 발때 :
 발목댕이 : 발목.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곳.
 발싸심하다:어쩔줄모르다
 밥끄럭. 바끄럭 : 밥그릇
 밥택이. 밥태기 : 밥알
 밥택이:밥알
 방맹이 : 방망이
 방애 : 방아
 방애간:방앗간
 방애꼴 : 물방아간이 있는 골짜기
 [방죽] : 뚝
 [방천] : 뚝
 배 : 부화. 화

배기다. 개기다 :버티다
 [배기다] : 보이다
 배나다 : 화가 나다.
 배때지:배[배때기]
 배락 : 버락
 배람박 : 바람벽
 배러부렀다 : 버려버렸다.
 배루 : 버루
 [배룩] : 버룩
 [배슬] : 버슬
 [배슬] : 버슬(닭 버슬)
 밴소 : 화장실[치간]
 [백여시] : 백 여우
 백짜 : 벽
 벨 : 별
 벨라도 : 유독. 유별나게
 벨시럽다 : 별스럽다.
 뱅 : 병[빙]
 [버드나무] : 개 버들
 [버들] : 포플라(나무)
 [버신] : 버선
 버짐 : 버즘
 버금. 뺨금 : 거품[보금]
 번덕지 : 너른 공간
 번연히 : 뻥히. 확연히
 [벌거지] : 벌레
 벌로들다 : 귀 기울여 듣지 않다
 벌새 : 벌려
 벤또 : 도시락(일본어 인듯)
 보고자프면:보고싶으면
 보끄다 : 복다
 보담 : - 보다
 보담은:보다는
 보둑다 : 꺼안다
 보라꼬이따. 보라꼬있다 : 별 생각없이 앉아있다
 보새기:작은그릇
 보선:버선
 보초웁다:버릇없다
 보트다 : 바싹 마르다.
 복깨트:호주머니
 복성:복숭아
 복송. 복성 : 복숭아
 복송씨 : 복숭아뼈
 본께로:보니까
 [불장 다보다] : 더 이상 필요없다
 불충하다 : 벌충하다
 불태기. 불때기 : 불. 음식이 입에 가득한 모양.
 [봄똥] : 보리수 열매/ 봄배추
 볏다 : 밟다
 볏다. 밟다 : 밟다
 봄똥 : 봄동. 봄에 나오는 어린 배추.
 볏다:밟다
 [부러] : 버려(그래 부렸어?:그래 버렸어?)
 부삭. 부삽 : 아궁이
 부잡허다 : 위험하거나 못된 행동을 하다.
 부지땅:불때는막대기
 [부철이] : 부침이
 북감자:감자
 북새 : 노을
 북새질 : 북새통을 만드는 일

분지 : 작은 웅기소변통
 분 지르다 : 화를 돋우다
 [불문탱이] : 빠가사리
 불통시럽다 : 통명스럽다
 봉알. : 불알. 사내아이
 [봉알] : 속어(남자의 불알)
 봉애 : 봉어
 비게 : 베개
 비까래 : 비탈진 지역. - 비까래 밭.
 비내 : 비녀
 비다 : 베다
 비문이 : 어렵히
 [비암] : 뱀
 비여다 : 베어다
 비우짱이없다 :비위가없다
 비사리 : 싸리나무
 비찌락 : 빗자루
 빙새 : 붉은머리 오목눈이 새
 빙. : 병
 빙신 : 병신
 [빙원] : 병원
 빠가 : 멍청이 -그 새끼년 대가리가 빠강께
 [빠구리] : 땡땡이(경상도는 속어:성관계 지칭)
 빠곰살이. 까곰살이 : 소곰놀이
 뽕대기. 뽕닥지 : 뽕
 [뽕스] : 팬티
 뽕뿌리 : 담배 피우는 도구. 좀 짧은 담뱃대
 빼다간. 빼다지 : 서랍
 [빼다지] :서랍
 [빼미] : 논외 갯수를 세는 단위
 뽕다구. 빼따구 : 뽕다귀
 [뽕찌] : 벤지
 [뽕] : 뽕
 [뽕꼬] : 성관계 속어
 [뽕끼] : 페인트
 뽕이. 뽕도리 : 팡이
 빼굼:거품
 빼친다:힘들다[화 난다]
 뽕소리 : 헛소리
 [뽕록나다] : 들통나다
 뽕사지다 : 부서지다.
 [뽕수구다] : 잘게 부서다
 뽕짜 : 가까이
 뽕 : 본보기
 뽕강짜서:힘주어짜서
 뽕그잡잡. 발그잡잡 : 벌건 얼굴
 뽕강 :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드는 모양
 [뽕다] : 빨다
 빨아 묵다 : 빨아 먹다
 뽕부:펌프[뽕뽕]
 [뽕] : 오디
 뿌라쉬. 뿌라시 : 수소
 뿌락대기 : 황소. 큰 수소
 [뿌락때기 소] : 뽕이 큰소
 뿌랑구. 뿌랭기 : 뿌리
 뿌사리:황소
 [뿌질다] : 부러뜨리다(막대기를 뿌질다)
 [빼까번쩍] : 아주 번쩍번쩍
 빼대다:느릿느릿 움직이다
 빼비 : 뽕기(억새풀 새싹)

빼비 껍딱 : 뽕기 껍질. 있으나마나 한 사람을 뜻함
[뽕사리] : 빗나간
[뽕이] : 흰히
뽕가다 , 뽕가다 : 빨갱다.(붉은색갈)
[뽕건] : 빨간
뽕아리. : 병아리

사
사둔 : (사돈)
사방데 : 전체. 온몸
[사보] : 삽
삭신 : 몸 전체.
[산팔뱅이] : 높은 산 밑에 있는 논
[산돌] : 아주 작은 수정 돌
산두 : 발버
살강:그릇시렁
[살마대]:팬티
살망태 : 망태기
[살모시] : 살며시
삼시랑 : 볼품 없는 물골
[삼춘] : 삼춘
상나무:향나무
상불르다 : -ㄹ 성싶다
상추 : 상치.
새구. 색우 : 석유
새금패리 조각 : 웅기,자기 조각
[새꺼리]:새참
새꼬데기 : 새로운
[새끼 상거리] : 작은 구멍가게 있는곳
새내끼 : 새끼[사내끼, 새깁이]
새다리 : 사다리
[새때] : 점심 때(저녁 때:저녁때)
새림문. 새름문. 새른문. 새립 : 대문
[새로쿵,새로코] : 다시
[새릅뽕] : 대문
새복 : 새벽
새비 : 새우
새살 : 잔소리
[새알죽] : 팔 웅심이
새와젼:새우젼[새비 젼]
색우:석유[지름]
[샌] : 남자 어른 높임말
샬팍 : 대문 밖.
생똥허다 : 엉뚱하다
생애. 생이 : 상여
샤끼. 새내끼 : 새끼[사내끼]
상. 시양 : 시제서꾼다 : 섞는다
서꿀. 석꿀 : 서까래[새까래]
서답 : 빨래
서숙 : 조
석꿀:서까래
선상 : 선생
성 : 형
성가 : 형. - 성가는 다 앙가?
성가시다 : 귀찮하다,힘들게하다
성남:형님
성문 : 정강이[정깁이]
성수 : 형수
션찮허다 : 시원하지 못하다. 분에 차지 않는다
[쏘내기] : 소나기

[소갈머리 없는] : 생각(속마음)이 없는
 소냥, 소양 : 소용
 소락떼기, 소락데기 : 큰소리
 소마구 : 소를 기르는 건물.
 소매 : 오줌, 소변
 소지 : 청소
 소피 : 소변
 소향치:송아지
 속아지 : 속, 속마음
 속케 : 숨[소케]
 속케집 : 숨집
 손구락 [-꾸-] : 손가락.
 손금 [-꿈-] : 손금.
 [손잡이] : 손잡이
 손지 : 손주
 [손툰] : 손툰
 솔 : 부추
 [솔나무] : 소나무
 솔찬하다 : 상당하다, 대단하다.
 [솔단지] : 솔
 [솔뚜방] : 솔 뚜껑
 송쿠 : 송피, 소나무 껍질
 쇠양치:송아지
 쇠때 : 열쇠
 [수르매] : 오징어
 숟꾸락, 수꾸락 : 숟가락
 [숯] : 윳
 송 : 흥
 송구고:심고
 송내:흥내
 스다 : 서다.- 마까대기가 곳곳이 서부렁네 - 애기 스는갑다
 [스피카] : 스피커
 [시끄다] : 씻다
 시난고난 : 병이 심해지는 앓으면서 오래가는 모양
 시다:헤아리다
 시렵다 : 스럽다 -모양이 뽀시렵드랑께
 시렁 : 선반.
 [시룽] : ~면서(그럼 시룽<그러면서> 갔냐?)
 [시방] : 지금
 시빠람, 휘가락 : 휘파람
 시상 : 세상
 시아부지, 샤부지 : 시아버지
 시아지, 상치, 시양치 : 송아지
 시암 : 샘
 [시앙] : 시제
 시엄 : 수영
 [시엄] : 수험
 시엄니, 섬니 : 시어머니
 시장시렵다 : 한심스럽다
 [시찬다] : 시원찮다
 시퍼보이다 : 만만하게 보인다.
 시피보다, 시퍼보다 : 쉽게 보다, 만만히 보다, 무시하다
 시한 : 겨울
 [신청도] : 아랑곳도
 신청하다 : 간섭하다
 실가리 : 시래기
 [실겁다] : 어른스럽다
 실금실금 : 슬금슬금
 실꾸리 : 실 꾸러미
 [실경] : 방 천장에 매 달은 선반

실답잖다 : 시덥지 않다
 심 : 샘. 마음
 심 : 힘
 심 파허다:힘 빠지다
 심들다:힘들다
 심지다 : 힘있다
 싯 : 셋
 시돌 : 숫돌[싯돌]
 [~싸] : ~는데(왜 그래싸?/왜 그러는데?)
 싸게싸게 : 빨리빨리
 싸난 : 사나운.
 싸납다 : 사납다
 [싸다니다] : 심하게 돌아다니다
 싸목싸목 : 싸목싸목
 싸쌀. : 천천히
 [쌈] : 싸움
 쌍놈 : 상놈
 쌍소 : (예) 벨라도 그래쌍소
 싸:허
 싸배불다 : 흠치어버리다.
 쌍고네기 : 시제 끝에 각자가 집에 가져가는 꾸러미
 써 : 해. - 그라드라도 참어사 써
 세 : 허
 췌바늘 : 헛바늘
 췌바닥 : 헛바닥
 췌하다 : 시원하다
 [쏘내기] : 소나기
 쇠, 새 : 쇠. 철
 [쑤새불다] : 쑤셔 버리다
 [쑥돌] : 화강암
 쓰것다 : 좋다. - 하겠다
 쓰다 : 켜다
 쓰봉 : 바지
 씨부랑대다 : 중얼중얼하다.
 씨알 : 설득할 수 있는.
 씨압씨 : 시아버지를 낮게 부르는 말
 씨언허다. : 시원하다
 씨엄씨. : 시어머니를 낮게 부르는 말
 씨영쿠, 성코 : 시원하게
 씨연헌거:시원하구나
 씨잘대없이:쓸데없이
 [싸나락] :범씨
 [싸가리 국] : 우거지 국
 싸개 : 쓸개
 씼벅씼벅 : 씼벅씼벅
 [씼] : 속어(여자 어른 성기)
 [씼쭈구리] : 속어(기가 죽은)

아
 [아갈통]: 아구지
 아굽 : 아흠
 아랫목 : 아랫목
 아버지 : 아버지.
 아이고매 : 아이고
 아제:아저씨
 아짐:아주머니
 아짐씨:아주머니높임말
 아짐찬하게:미안하게
 아착:아침(밥)
 암디서냐:아무데나

암말도:아무말도
 암사타나다:아무렇지않다
 암상토 : 아무렇지도
 암시랑:아무렇지
 [암시롱] : 알면서
 앓따:그러지말고
 앓가:앓어
 앓존자리:앓은자리
 [애 새끼] : 나이 어린 아이
 앓간하다(어지간하다)
 앓기래보다. 앓기래보다 : 쏘아보다
 앓생하다 : 옹색하다
 [앓수기] : 양귀비
 야그 : 이야기
 야냥부리다 : 아양부리다
 야달 : 여덟
 야마튼 : 여하튼
 야물게:단단하게
 야차와지다. 나사지다 : 낮아지다
 야참다:낮다
 [약뽕] : 약방
 양발:양말[다비<일본어 인듯>]
 양식:양식
 양산:많이
 어디관대:어디길레
 어똥게 :어떻게.
 어룽진다:얼룩진다
 [어중간 하계]:애매하게
 [어지간]: 얼마나
 어처크름:어떻게
 [어치께] : 어떻게
 언능 : 빨리[핑]
 언원이 : 좀 더. 훨씬
 얼금뱅이. 뽕보 : 곰보
 [얼금이] : 채(곡식 고르는 기구)
 얼렁얼렁:빨리빨리
 얼름:빨리[얼렁]
 엄니 : 어머니.
 엇지까야:어떻게할까[어찌크롬 하제?]
 엉 : 낭떠러지
 예나 : 아나. 엇다.
 예나 : 오히려. 훨씬
 예나 : 진짜. -예나 그랬다고?
 예롭다:어렵다
 예맨 :애매한
 예진간하다:어지간하다
 여그 : 여기
 여년히 : 어련히[어련이]
 여러서 : 부끄러워서[여루와서]
 여름 : 부끄러움
 여서 : 여기에서
 여서 : 여섯
 여시 : 여우
 역부러 : 일부러
 연연히 : (매년)
 [연 자새]: 연줄 감는 기구
 열로 : 여기로
 염빙하네:맘에들지않네
 옛장시 : 옛장수
 영축없다 : 영락없다

영쿨. 년출 : 년쿨
 영판조타:아주좋다
 열고서:넣고서
 열다 : 넣다.
 예팬네 : 부인
 오가리 : 크기가 작은 웅기
 오돌게 : 뽕나무의 열매. 오디[뽕]
 오랑깨:오너라
 오매 : 흥에 취해 저도 모르게 나오는 탄성.
 오매우짜까:어쩌면 좋을까
 오매존거:매우좋다
 오모매 : 감탄사
 오셔:오십시오[오시시오]
 오신도신 : 오손도손
 오지개서:오죽하면
 오지다 : 분에 넘치고 과분하다. 오달지다.
 오직 : 오죽
 옥썴시. 옥썴시 : 옥수수[깁냉이]
 [올개쌀] : 찢 새쌀
 [올그미] : 체(걸러내는)
 올 : 금년. -올시한
 올란지도 : 오려는지[올랑가]
 올 시한:올 겨울
 [웅그라지다] : 시들어지다(찌그러들다)
 웅탱이 : 짚으로 만든 그릇
 [웅팍하다] : 움푹하다
 웅판지다 : 내실있다[오골차다]
 와따:와!
 왔삭:오싹
 외. 물외 : 오이.
 외막 : 원두막
 외막(원두막)
 원사끼 : 원새끼
 요라고 : 요렇게[요로쿰]
 요래 : 이렇게 해서는의 뜻
 요망헌 : 행실이 바르지 못한
 요본 : 요번. 이번
 [요상스럽게]:이상스럽게
 [요상하다]:이상하다
 올로 : 이리로[요리로]
 용개질 : 용두질
 [용케] : 다행히/운 좋게
 [용하다] :신통하다
 우멍한 : 음흉한
 우새 : 망신
 [우새] : 거드름
 [우새떨다] : 거드름을 피우다
 우새시럽다:창피하다
 우슬뿌리 : 도깨비풀
 우악시럽다 : 거칠다
 [우장] : 억새풀로 만든 비옷
 우째 : 어찌. 어떠한 이유로
 육에 : 위에
 울어매 : 우리 어머니[울 엄니]
 웃통 : 상의,상체
 워따. 와따. : 부정적인 말을 강화하기 위한 감탄사
 워매 : 놀람[어매]
 워매매:어머머[어따매]
 워쩌크름:어떻게[어쩌크름]
 워치케로:어떻게[어치께]

[원생이] : 원숭이
 유재. 율집 : 이웃집
 을매 : 얼마
 읊다. 읊따 : 없다
 응께. -쓰께. -쓰께 : (예) 되얏응께
 이깁 : 낚시밥
 이녁: 당신. 자기.
 이따가 : 나중에. 후에.
 이랴. 이랴 : (소를 몰 때) 이리로, 오른쪽으로
 이므령께. (이물없다) : 잘 아는 사이이니까.
 이약 : 이야기.
 임제 : 임자.
 입다실거 : 군것질거리.
 [입빠이] : 가득(일본어 인듯)
 잉께 : (예) 배불르기는 매일반잉께
 [앞사구] : 앞사귀

자
 자근아부지:작은아버지
 자꼬 : 자꾸
 [자네] : 존칭의 아래말
 자롭다 : 짧다.[짧롭다]
 [자빠져서] : 누워서/넘어져서
 자세한다:비싸게군다
 자숙:자식[짜식]
 [자시다] : 잡수다
 자우라지다:기울어지다
 [자울령꽃] : ?
 자울다:졸다
 자진거 : 자전거
 자프다 : 싶다
 작것 : 잡것
 작꾸 : 지퍼
 잔생이도: 조금도[째끔도]
 [잠지] : 숙어(여자 어린이 성기)
 잣대발대하다:거만스럽다
 [장개] : 장가(남자 결혼)
 장군:분노운반통
 장강:장독대[장꼬방]
 장꼬방 : 장독대
 장꼬방(장독대)
 장도가지 :장을넣는 항아리.[독아지]
 [장생이도] : 은근히 아주
 장사:장사
 재린다 : 졸금거리다
 쟁간:잠긴
 [재장긔다] : 짓긔다
 [저구리] : 저고리
 저그 [찌-] : 저기
 저녁 : 저녁
 저드랑 : 겨드랑
 저라. 저랴 : (소를 몰 때) 저리로, 왼쪽으로
 [저서사리] : 마삭줄
 적지금:제각각
 저범:젓가락.[재뵐]
 전디다:견디다
 [절구지] : 절인 배추
 [점뽕] : 가게
 젓통:유방
 정 때 : 저물 무렵.[해그럼판] 저녁 때.[저녁 때]

정개:부엌[정재]
 정내미:정의 다른말
 정심:점심
 정제:부엌[정재]
 짚에:곁에
 [~제]: ~지(그렇지?/ 그러제?)
 조것 : 저것
 조단조단:조목조목
 조랭이:고기잡는망
 [조랭이] : 조리
 조로 : 깔때기.
 조사먹다:쪄아먹다
 조시 : 율. 정도
 [조시] : 조절
 [조시다] : 다지다
 [조충] : 조청
 줄갱이질:모진 괴로움
 [죇] : 속어(남자 어른 성기)
 좇다:뽐족한것으로찍어내다
 종그다 :벼르다
 종당에넌:결국에는
 종우때기:종이조각
 좌우당간 : 좌우지간. 좌우간.
 주맹이: 주둥이. 입.
 주렁:지팡이[지팡이]
 [죽신] : 죽순
 줌시로:주면서
 췌 : 주인
 즈그집:그사람집
 지 :김치
 [지] : 소금에 절인 배추 혹은 무우
 [지각] : 제각(제사 지내는 곳)
 지까심. 지까슴 : 김치거리
 지다라다. 지단하다. 지맹하다 : 길다랗다
 지둥 : 기둥
 지력지:길이
 [지르다] : 기르다
 지름 : 기름
 [지미 씨발]: 속어의 강조
 지발 : 제발
 지발적지금 : '제발'의 훨씬 간곡한 어조
 [지붕] : 지붕
 지부가:제비가
 [지사] : 제사
 지스락:추녀
 지심 : 잡초
 [지심]: 경작지의 잡초
 지안 :지난
 지양시럽다 :장난스럽다.
 지와:기와
 지집:계집
 지팡이 : 지팡이
 [진도리] : 놀이의 일종
 진작:진작
 질 : 길
 질 : 제일
 [질] : 물건의 좋고 나쁨 상태
 [질금기]: 납작 게
 질다 : 길다
 질다 : 질척질척하다.

질로:제일로
 질쌔:길쌔
 짐 : 김.
 집 : 잡초.
 짐치 : 김치
 [징금새비] : 검정 새우
 징상스럽게:무척
 징허다:징그럽다
 징헌 : 징한
 짚새기:짚신
 짜구 : 자귀 (나무를 깎을 때 쓰는 도구.
 짜구 : 자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짜구 나것다 : 흡족하게 많이 먹어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짜구때 : 망치자루
 짜구때나무 : 자귀나무[구신나무]
 짜납다:아까웁다
 짜롭다 : 짧다
 [짜르다] : 자르다
 짜자나다:부끄럼이 많다
 [짜잔허다] : 아물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짹두:작두
 [짼 허다] : 불쌍하다
 짹잘하다 : 잘잘하다
 짹맨다:묶는다
 [짹다리 꽃] : 장다리 꽃
 [짹어] : 장어
 짹간하다:작다
 [째끔] : 조금
 짹다 :도망가다
 짹미다:잡아묶다
 찌그:저기
 찌로 : 저리로
 [찌룩발이] : 다리 장애인
 찌각 : 조각. 파편
 찌간:조금
 [찌간] : 작은(소)
 찌까먹은:조금먹은
 찌간한:조그마한
 찌깨:조금[째끔]
 찌빱:바가지[바가치]
 찌로 : 조리로[찌리로]
 [찌다리] : 무우 끝 부분
 찌금:조금[째끔]
 찌갱이:찌꺼기
 [찌개] : 집게
 [찌게벌레] : 장수 하늘소?
 찌끄래기:지스래기
 찌끄르다 : 뿌리다
 찌르래미 : 쓰르래미
 찌부때다 : 꼬집다
 찌새불다 : 찌르다[쑤새불다]
 찌시 : 수수[쑤시]
 찌울다 : 기울다
 찌기다 (끼이다)

차
 차 : 까지. - 무시 두 개에다가 배추차 들고갈라고?
 차 : 채 -버선 신은 차로 뛰어 땡기드랑께
 차대기 : 자루. 포대
 [차대기] :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넓은 천

차댕이:자루
 [차돌] :
 차두 : 포대
 [차두] :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자루
 차또그럭 : 햅쌀을 일년 동안 담아놓는 독
 차로 : -처럼
 차말로 : 참말로, 정말로[징말로]
 차몰미 : 차멀미
 차부 : 버스터미널
 착 : 책
 찬찬히 : 천천히, 자세히
 [참꽃] : 진달래 꽃
 [참연] : 방패연
 창세기 : 창자[창시]
 창시 : 창자
 창아리:창자
 [창아리] : 속어 (내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
 채도 : 훨씬
 [챔빔] : 참빔(빔살이 가는빔)
 처-묵다[-따] : 처먹다.
 천신 : 차지
 청 : 꿀
 체금 : 책임
 체리다 : 차리다
 체부 : 우체부
 [챙이] : 키
 [초꼬지불]:호롱불
 [초생달] : 초승달
 초집:초가집
 출래소리:피리소리
 출레 : 버들피리, 호드기
 총총허다 : 총총하다
 추롬 : 추럼
 [춤] : 침
 춤볼라:침발라
 충 : 회충
 취께세우다 : 추켜세우다.
 [칙간]:변소
 치끼 : 척, 듯이
 치네다 : 치우다, 비키다
 치다 : , 치우다,, 매다, 하다.일구다.때리다.
 치매 : 치마
 칭칭이 : 층층이

카
 카만두다 : 가만두다
 카수 : 가수, 노래하는 사람.
 카칼히 : 깨끗이[깨끔하게]
 칼칼히 : 깨끗이
 커리 : 컬레
 케 : 코
 코:올가미[올개미]
 [코뚜리] : 소 코알개
 코보 : 코를 훌쩍거리는 아이
 [코뽕뽕이] : 코 없는
 코뽕이 : 코빼기[코뽕빼기]
 코쉬염 : 콧수염
 코패기 : 코빼기
 콧물도 없다 : 국물도 없다
 [콧물도 없다] : 어림 없다

[국물도 없다] : 아무것도 없다

콩노물:콩나물

크내기:아가씨

[크내기 꽃] : 명자 꽃

큰년 : 맏딸

큰놈 : 맏아들

타

타깝다 : 안타깝다[안시럽다]

타지다 : 터지다.

탁백이집:막걸리파는집[주막집]

택시 : 승용차.

탁했다 :닭았다

탄네 : 타는 냄새

탐막질 : 달음박질

탐박질 : 달음박질

태옥:종아리[장딴지]

태죽 : 표

택 : 가능성. 가망. - 나는 택도 없다.

택아지:텍[텍조가리]

터미날 : 터미널

터벅 : 불쑥[덜렁]

터뻑 : 털썩[철푸덕]

[터우] : 힘센 증기 기관차(약한 ;미카)

터풀다 : 아우를 보다

덜렁덜렁하다 : 덜렁덜렁하다

테죽 : 자국[짜죽/태죽]

텍텍 : 녹이 심하게 쓴 모양

텅이 : 곰팡이[곰팡이]

토강감자 : 씨 고구마

퇴갱이:토끼[토갱이]

투시발:옹기그릇

(얼) 맞다:면박을 당하다

틀 : 재봉틀

툼툼하다 : 날씨가 흐리다[곰곰하다]

툼툼하다 : 톼툼하다

[툼툼하다] : 걸쭉하다(몹지않다)

티 : 태

티미허다 : 투미하다

[티바지] : 쓰레받이

티집 : 트집

팅기다 : 튀기다 - 기타 Ting기는 사람이 누구여?

파

파묵다 : 파먹다

[파랑새] : 호반새

파이다 : 파하다. 헤어지다. 끝내다

[파이다] : 별 볼일 없다

[파토]: 흐지 부지

파허다 : 끝나다. 종례

파허다 : 빠지다. -심 파헌다

팍팍하다:힘들다

[팍팍하다] : 거칠고,되다

판떼기 : 널판떼기

[팔랑개비] : 바람개비

패대기치다:던져버리다

[패] : 딱지/화투 짝

퍼걱퍼걱하다 : 힘이없이 퍽퍽하다

[퍼질나게] : 쓸데없이 아주 많이(자다)

퍼질르다 : 퍼져버리다

[퍼질르다] : 거침없이 떠들다.
 [퍼져버리다] : 힘이 다해 버리다.
 [픽지거니] :편하게(앉다)
 포게입다 : 끼입다.
 포각질 : 딸꾹질
 포도시 : 겨우[포돈시]
 포래 : 파래
 포레 : 파래
 포로시 : 겨우
 [포룻포룻] : 파룻파룻
 포리 : 파리
 포리똥:주근깨
 [포리똥] : 보리똥 열매
 포리하다 : 파르스름하다
 폭삭하다 : 폭신하다
 풀 : 팔
 풀각질 : 딸꾹질
 풀깨를:팔뚝을
 풀꿈땡이 : 팔꿈치
 풀다 : 팔다
 [풀딱 풀딱] : 팔딱 팔딱]
 풀새:벌써
 풀싸케 : 진작
 풋:팔
 푸각질 : 딸꾹질
 푸대 : 포대
 푸정가리:나물[노물]
 푸지다:푸짐하다
 [폭삭하다] : 폭신하다
 폭하다:포근하다
 풀허다 : 풀하다. 파랗다.[퍼러다]
 풀헤지다 : 파래지다
 품들다 : 품팔다
 품바꾸다 : 품앗이하다
 품사다 : 품앗이하러 가다
 품풀다 : 품팔다
 풍로 : 풍구
 피마주 : 피마자[피마지]
 피창 : 순대
 핀둥이 : 풍뎡이[핑갱이]
 [핀엿] : 정제되지 않은엿
 [핀지] : 편지
 핑갓다와'빨리갓다와
 핑갱이 : 풍뎡이
 핑데이 : 풍뎡이
 핑허니 : 곧장 . 빨리

하
 하 : 아.
 하 : 아무렴
 하고씨이다 : 하고 많다
 하꼬, 학고 :
 하난 : 많은
 하네 <명> : . 할아버지.
 하늘수박 : 하늘타리[하늘수박]
 [하늘바람] : 하늬바람
 하대끼: -하듯이
 하라부지:할아버지
 하면 : 그럼. 그렇지.[하믄]
 하면이라:그렇지요[하믄이제]

하지감자 : 감자
 학독:양념가는그릇
 한당께:-할예정입니다
 한질:큰길[큰질]
 [한질] : 한 자(척)
 [한코] : 속어(성관계)
 [할매 꽃] : 할미 꽃
 할라 : -까지[까징]
 할랑가:할려는지[해 불량가]
 [할아버지] : 할아버지
 할암씨: 신분 낮은 사람의 할아버지.를 때 사용함.
 할엄씨 : 신분이 비천한 이의 할머니.
 함 : 하품
 함마니:할머니[할무니]
 함무니 : . 할머니.[할망구]
 함뽕:한입에
 함바지:한복바지
 합수:분뇨
 항께 :하니까
 해그럼판 : 해질녘. 석양
 해기 빗찌락:벚짚의 속만 빼서 만든 빗자루.
 해리다 : 약하다. 좋지 않다.
 해바불다 : 싸움에서이기다
 해배분다 : 후비다
 해보다 : 이긴다.
 [해보다] : 겨뤄보다
 해찰 :탄청
 핵교:학교
 [헛때] : 길게 생긴 옷걸이(주로 대나무)
 행가치 : 행주
 [행가치] : 손수건
 행투:행동거지
 허(호)빡 : 충분히
 허다 : 하다.
 [허방] : 작은 구덩이
 허부때다 : 손톱으로 핏대[흫다]
 [허벌나게] : 굉장히 많이
 허새비:허수아비
 허자면 : 하자면
 허천나다 : 걸신들리다
 허천병:무조건먹는병
 허치다 : 흠다. 흠뜨리다
 [허친거리] : 쓸데없는 짓
 헌디 : 그런데.[그런디]
 험사 : 하며. 하다면.
 헤리다 : 모자라다[모잘르다]
 [헤꼬지] : 남에 대한 복수(?)
 [헛때] : 길게 생긴 옷걸이(주로 대나무)
 형수님(형수님)
 행오 : 행위[행실]
 혀 : 해 - 심 닿는대로 혀봐야지라이
 호(하)빡 : 충분히. 매우 많이
 호랑:호주머니[개와]
 [호래비] : 흠아비
 호랭이:호랑이
 호로자식:후래아들[호로 새끼]
 호맹이:호미
 흠태질:흠태수확
 화리:화로
 [화사] : 꽃땀

환장허것네:미치겠네
[후라시] : 후레쉬
흠치없이:힘없이
히놀놀하다: 핼쓱하다
히마가리 : 힘. 힘이 없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
히마리 : 힘. 힘이 없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
[히말때기 없시] : 힘 없이
히어지다 : 헤어지다
[히컨] : 하얀
[히프다] : 헤프다
힘다구리 : 힘. 힘이 없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출처 전라도사투리

단어 구분모음1

2012.02.09 16:06

[단어 종합 보기](#) / [단어 구분 보기](#) / [단문 보기](#) / [유머 보기](#) / [장문 보기](#) / [속어\(욕\) 보기](#)

[벌교주변 사투리]	갈구생이 → 갯지렁이	가랭이: 가랑이	
가시개 - 가위	거시랭이 → 지렁이	가매: 가마(머리에 난 가마나	
간짓대- 장대	거품-버름	들고다니며 사람을 태우는	
개동백 - 녹차나무	개구락지 → 개구리	것에도 해당)	
개꽃 - 철쭉	개구리-개구락지	가물: 가뭄	
거마리 - 거머리	고-코빼기	가심: 가슴	
고쟁이 - 구멍 뚫인 하의	괴기 → 고기	가시내: 가스나. 여자아이	
구루마 -달구지	거머리-거머락지	가실: 가을. 가을걷이. 추수	
기 - 게	거무 → 거미물	간댕이: 간덩이	
기동차 - 디젤 기관차	고등애 → 고등어	감낭구: 감나무	
깜밥 - 누룬지	광장하-겁나게	감톨개: 감꽃	
깡냉이 - 옥수수	귀 - 귀때기	감자-)하지감자(하지에 나는	
꼬랑 - 도랑	그러니까-궁게	감자를 말한다. 당감자는 고	
꼴랑지 - 꼬리	그런데-근디	구마)	
꾸정물 - 구정물	기 → 게	강: 그냥	
다래끼 - 대항아리	까마구 → 가마귀	개안하다: 개운하다	
다매(일본어 같음) - 구슬	깐치 → 까치	개풀어지다: 맥없이 허탈하다	
다비(일본어 같음) - 양말	깔치 → 갈치	갱아지: 갱아지	
단수시 - 사탕수수	노리 → 노루	거시기: 세상 모든 사물과 상	
덕석 - 명석	낙자 → 낙지	황에 대해 쓰는 말이지만 불	
도구통 - 절구통	누룬지-깜밥	특정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	
도라꾸 - 트럭	당나구 → 당나귀	으며 상황에 몰입해야 알아	
독아지 - 항아리	두꺼비 → 두꺼비	들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뜻	
돌쪼꾸 - 경첩	독새 → 독사	을 담고 있는 말. 머시기와	
두와지 - 돼지	동치미-싱건지	저시기도 있다.	
뒤안 - 뒤뜰	멸따구 → 멸치	거시랑치: 지렁이	
뒷동 - 뒷동산	모구 → 모기	거랭이: 거머리	
등봉 - 연못	멤생이 → 염소	거지깁: 거짓말	
똥걸 - 나무뿌리	머리-대그빱	겁나게: 꽤 많이	
무시 - 무우	머리채 - 멸꼬댕이	겁단나게: 겁도 안 나게 많은	
물레(마롱) - 마루	머리카락 - 멀크락	검부적: 검불	
물방거리 - 물레방아 간	발가락 - 발꾸락	경개, 공개: 반찬	
물딱 - 무릎	발목 -발목댕이	겨: 그려	
		겨!: 기어!	
		겸: 고음(감보다 작은 열매)	
		경물: 설거지하는 물.	
		고삭: 고살	
		고새: 그 사이	
		곡식: 곡식	
		곰부랏대: 고무레	
		괜찮아: 괜찮아	
		괭이: 고양이	
		괴기: 고기 물괴기 닭괴기	
		구녕: 구멍	
		구녕: 구멍	
		구댕이: 구덩이	
		구랭이: 구렁이	
		구시: 구유	

미카 - 경 증기기관차
 발꾸락 - 발가락
 발떼 - 가래
 방전 - 뚝
 방 굽도리- 방 모퉁이
 배름빱 - 벽
 복송 - 복숭아
 부삭 - 아궁이
 부지땡이 - 부지갱이
 부채꽃 - 칸츄리 꽃
 부철이 - 부침이
 빗새 - 붉은머리 오목눈이
 빙 - 병
 빙원 - 병원
 빼다지 - 서랍
 뺑꼬 - 성관계
 빼비 - 억새풀 속살
 뺑건 - 뺑간
 뺑아리 - 병아리
 살강 - 찬창
 새다리 - 사다리
 서숙 - 조
 세립문 - 사립문
 송쿠 - 소나무 속살
 솔단지 -솔
 쇠편 - 열쇠
 수꾸락 - 수저
 쑤시 - 수수
 쓰리빠 - 슬리퍼
 쓰봉 - 바지
 앓을쟁이 - 앓은의자
 연자세 - 열레
 우장 - 억새로 만든 비옷
 장꼬방 - 장독
 적 - 부침이
 점뺑 - 구멍가게
 정재 - 부엌
 제봄 - 젓가락
 주땡이 - 주둥이
 죽신 - 죽순
 지름 - 기름
 지봉 - 지붕

벌거지 → 벌레
 백녁구 → 흰여우
 부추-술
 빼들구 → 비둘기
 뺑따구 → 뺑따귀
 뺑아리 → 병아리
 사마구 → 사마귀
 새비 → 새우
 쇠양치 → 송아지
 썩놈 → 수놈
 여시 → 여우
 여달이-빼달이
 조구 → 조기
 장닭 → 수닭
 퇴깽이 → 토끼
 파리-퍼리
 포리 → 파리
 핑깽이 → 풍덩이
 호랭이 → 호랑이
 맞다-기다
 일어나-인나
 뿌리다-찌클다
 아니잖아-아니자녀
 힘들다-되다
 풀다-끌르다
 끼우다-깍기다
 매일,항상-맨날
 이제-인자
 지금-시방(육아님)
 어지간하-엔간치
 왜그래-왜그려

구신: 귀신
 국시: 국수
 군중내: 군내. 굶은 냄새
 궁병이: 궁뎅이
 귀때기: 귀
 귀뺑뎅이: 귀싸대기
 그럭: 그릇
 그글페: 그글피
 궁께: 그러니까
 글페: 글피
 길->질
 기름->지름 콩기름-->콩지름
 길다->질다
 길모퉁이->질모퉁이
 김->짐
 김->해우(해태)
 기다: 그렇다 해당한다 맞다
 기무시다: 주무시다
 김생: 김생원. 이생 박생(생님 또는 생원)
 김치->(지). 배추지, 묵은지, 무시지, 단무지,
 까끔: 산
 까마구: 까마귀
 까시: 가시
 깐난이 깐난쟁이 깐난이: 갓난이, 갓난애, 아기
 깔: 꼴-"아래 야가 살아 있는 흔적이다. 달구새끼에서도 볼 수 있다.
 깔따구: 하루살이의 하나
 깔망태: 꼴망태기
 깔밥: 바짝 높은 누룽지로 물을 붓지 않고 과자처럼 먹는다.
 깨굴창 깨굴창: 하수도나 마찬가지인 개울
 깨금: 개암. 도깨비와 형제 이야기에서 꼭 깨무니까 놀라자빠져 도망갔다는 열매
 깨금발: 한쪽 발로 통통 뛰는 종중 걸음
 깨구락지: 개구리
 깨잘: 사탕이나 과자
 깨잘깨잘 먹는둥 마는둥 처먹기 싫은 모양
 깽번: 강변>깽변>깽번>깽번
 깽이, 깽이: 깽이
 꺾꺾지근하다: 못내 아쉽고 부족하다
 꺾뎅이: 꺾뎅이, 꺾둥이
 꼬랑지: 꼬리
 꼬시레: 고수레
 꼬치, 꼬추: 고추
 꼬침: 고비. 고사리와 비슷한 나물
 꼴짝: 꼴짝, 꼴짜기
 꽃감: 꽃감
 꾸린내: 구린내
 꼬뎅이: 꼬뎅이. 예)머리꼬뎅

장금새비 - 검정새우 참꽃 - 진달래 참연 - 방패연 철뚝 - 철길 초꼬지 - 등잔불 칩간 - 변소 콩지름 - 콩나물 큰애기꽃 - 명자꽃 터우 - 중 증기기관차 포리 - 파리 풀 - 팔 핑 - 빨리 핀엣 - 엣 핑갱이 - 풍뎅이 해그럼판 - 해 질녘 해우 - 김		이 꿈: 껌	
---	--	-----------	--

유머 모음

2012.02.09 16:28

[단어 종합 보기](#)/ [단어 구분 보기](#)/ [단문 보기](#)/ [유머 보기](#)/ [장문 보기](#)/ [속어\(욕\) 보기](#)

[이놈 저놈 버전]

손님이 물건을 고르면서

발로 이놈은 얼마요. 저놈은 얼마요?

주인.....!! ????

이놈은 너고, 저놈은 애편네 요(죄송 꾸벅)

형제들이 모여서 액자에 넣을 아버지 영정사진을 고른다.

형 : 이놈 별로지?

동생 : 저놈도 못 쓰겠네요.

액자 주인.....!!! ????

그러면 이놈(형) 저놈(동생) 합해서 다시 찍어 넣지요...???

[해석 버전]

할머니 : 아~~야! 빠다지 속에 쇠때 좀 각고 오니라

손 자 : 애야! 서랍속에 열쇠 가지고 오너라.

할머니 : 등봉 우에 히컨 떼거워

손 자 : 연못 위에 백조

할머니 : 빨건 대글빡 가시랑년

손 자 : 빨강 머리 앤

할머니 : 해그럼판에 총잡이

손 자 : 석양의 무법자

[가정 교육 버전]

평소에 "인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 아프게 들은 순돌이가..

급해서 착각으로 여자 화장실로 불일 보러 갔겠다.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순돌이...!!

안에서 불일 보다 말고 벌떡 일어난 아주머니 왈

" 이 썩을놈의 새끼가..."

깜짝 놀라서 도망 나온 순돌이...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화장실로 가서 문을 슬며시 열고....
배꼽 인사로 "죄송합니다" 꾸벅~~! 가라사데..
" 할무니 똥 빨리 싸고 나오시오 ~~~잉

아주머니 !!! 알
"문뎡이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빠구리 버전]

XX도 아가씨 학생과 XX도 청년 학생이 사귀며 지내는데,
XX도 아가씨 : 오빠야! 오늘 빠구리치고 놀자~~!!
XX도 청년 :!!!!!!
하루 종일 돌아 다니다 저녁이 되었것다
청년 : 이제 X텔 가자!!!
아가씨 : 따~~따~~닥~~!!! (싸다구가 올라갔다:뽕때려..)
청년 : 빠구리치면서 놀자며...?????
아가씨 : 여태 놀았잖어~~~!!!
청년 :!!!!
(빠구리 의미 : XX도는 땡땡이.. XX도는 성관계...^^)

[소떡새 버전]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초저녁에 구슬프게 울어대는 소떡새!
시어머니가 자꾸 작은 술으로 밥을 해라고 며느리한테 다그치니
작은 술으로 밥을 하면 며느리가 먹을 밥이 없단다,
그래서 며느리가 죽어서 새로 태어나 한탄하는 것이라는데.
소떡새도 표준으로 혹은 사투리(속어)를 사용하는가 보다.

표준어로 울어대는 소떡새는 술~~적~~다!!!. 술~~적~~다!!!!
XX도 소떡새는 좇~~됐~~다!!! 좇~~됐~~다!!!!
XX도 소떡새는 씹~~새~~끼!!! 씹~~새~~끼!!!! 하고 운다냐!!! ^^
죄송! 꾸벅^^

짧은문장 모음

2012.02.09 14:49

[단어 종합 보기](#)/ [단어 구분 보기](#)/ [단문 보기](#)/ [유머 보기](#)/ [장문 보기](#)/ [속어\(욕\) 보기](#)

사투리 문장 모으기

[진달래 꽃 버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드리오리다

(나가 꿀보기 시르면 게옥질 나올라 그런께 가분다면 암말얏고 보내줄라마)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릅따다 가시는길에 뿌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참꽃 한웅태기 따라꼬 땡기는 질가예다 찌끌어 줄텐께)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그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땡기는 발목대기로 찌끄러논 참꽃 살짝 밟고 가시시오 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눈물 흘리오리다

(나가 꿀보기 시르면 게옥질 나올라 그런께 가볼때도 디저도 눈물 안 흘릴라마..)

[명언 버전 : 퍼온글=[다음 블로그 개나리](#)]

1. 성공을 이루겠다는 당신의 결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 링컨 -

* 니가 무신 일을 허라치면 기양 허야쓸거인디 생각만 허덜말로

반다시 헐 것이여..라고 맘을 오지게 묵는 것이 젤로 중하다는 것을 명념허야 써.

2.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 -케네디-

* 양곳도 모른놈이 지 맘도로 허는 것 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 잉~

내 맘도로 허덜 못함스로 많이 배워바짜 암 소용없는 것이여.

3. 경기의 99%는 선수가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1%는 감독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1%가 아니면 100%가 되지 않는다. - 퍼거슨 -(맨유 감독)

*감독은 옆에서 선수덜이 잘허게꼬름 째까 갈차주는 것 밖에 없어라.

글도 그 갈차주는 것으로 완벽헌 팀이 되는 거이제.

(감독 없으면 양껏도 안되야.)

4.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 히딩크 -

* 나는 아적까정 성이 안채! (배 고포께 밥이나 주랑께.)

5. 성공은 타인의 지지를 구하지 않는다. - 빌 게이츠 -

*노무 생각하다가는 큰 일 못혀. 궁께 니 거시기현대로 해부려!

6.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현명하고 똑같이 어리석다 - 아인슈타인-

* 지 잘났다고 염병덜 허지말고 째까 못 배웠다고 울 덜 말어. 사람은 싹 다 같은거여.

7. 그래도 지구는 돈다 - 갈릴레오 -

*즈그덜이 머시라고 해도 근 건은 근 것인디 워쩔 것이여?

8.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 나폴레옹 -

* 나가 못한거는 없당께. 맴 묵기에 달린 거 아니것는가?

9. 비천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명예롭게 짧게 살겠다 - 알렉산더 -

* 잉~~ 짧고 굵게 살아야 써! 얇싹허고 질게 살면 안되꼬나?

10.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 - 이순신 -

* 나 디졌소 복창허고 싹박질 허면 우덜은 승리하고 살아남을 것이여!

단문 모음1

2012.02.10 09:11

[단어 종합 보기](#)/ [단어 구분 보기](#)/ [단문 보기](#)/ [유머 보기](#)/ [장문 보기](#)/ [속어\(욕\) 보기](#)

자료출처 :[별교주변 사투리]

.가생이에 있는 지심은 다 맨느디 널 또 매야제

.감제가 몰랑몰랑허게 잘 찌져 부렸네 잉~~

.거지칼로 말해 분께..나가 성질이 입빠이 났제

.겁나게 큰디 어찌게 가고 갈것이어

.경계가 업으니 그러케 알고 자시시오!

.고상만 하드만 잘 산당께 맴이 좋크만

.골마리를 까본께 이가 구둘구둘 하드랑께

.구르무를 볼라가고 나빠닥이 뽀지르허구만

.구신 씌나락 까묵는 소리허고 자빠졌네

.그놈 새끼 허벌나게 꺼정허네

.그놈의 점빵 풀새 아작 나분거 몰라?

.그런께 나가머라 그랬어 녀도 부러라고 안했는가

.궁께 허지 말라고 해도 기연치 허드만 그랬당께

.까마구가 겁나게 얼어 디졌드라(춥다의 빗댄말)

.까시락이 모가지에 붙어가고 영 꺼끄러워죽것네

.깐치발로 꺼내다 자빠라져서 발꾸락이 뽀러져~

.깎꼬막에서 뜬걸 좀 캐다가 몰래야 쓰것다

.깜밥 묵으면 삼년 재수없단디 묵고있냐?

.꼬락생이 본께.. 사람되긴 틀려 처 먹었제?

.꼬슬름이 고래에 짹 차서 꺼내야 쓰것다

.XX떡 집 작은 여시는 느자구가 영 없드랑께

.나가 말이시! 자네 꺼정 그러면 섭섭하제

.넵도불소! 지가 알아서 하것제

.다래끼속에 문절구 잡어온거 썩어 불것다

.대글뽀 머리크락에 서케가 히커게부터 있드랑께

.덕석에 있는 서숙 다 몰랐나 한번 보그라이

.도구통에 벌거지가 있은께 깨깃이 시꺼라

.동냥치가 밥 한그럭 주란디 조야제 어찔거여

.뒤통의 매통에 빠비가 겁나게 만트라

.듬봉에 짱어하고 미꾸라지가 겁나게 있드랑께

.살마대 좀 뽀아서 간짓대에 너러부러라

.살모시 보듬응께롱~나빠닥이 뽀게 지드랑께

.새립문에 있는 비짜리 좀 가꼬 오니라

.소락때기를 질르면서 눈갈에 피뽀를 세우드랑께

.손꾸락에 때가 때작~때작~ 부턴네

.시방 머라 그렛제?

.(속어)싸가지 없는 새끼 뒤질래?

.싸납쟁이 간나구가 난리치고 땡긴당께

.쌔바닥을 대본께 짜서 못 묵것그만

.씨글놈의 새끼가! 디지지도 않고 개롭피니..

.씨잘대기 없이 헛질만 허고 땡깁께 가난허제

.(속어)씨발~새끼가~ 좇나게 지랄허네

.아이고~ 달뱅이 꼬치가 다 꼬실라져 부렸네

.어찌꼬롬 허다가 그러케 돼 부렸당가?

.얼금이로 쏘아논 짱똥이 좀 걸러 내야 쓰것다

.(속어)여자가 히프게 하고 다닝께 갈보라 그러제

.오살맛게 지랄허고 다녀야 말이제

.와따~~ 금방 와 부렸네

.요로크롬 성가시게 헛디 어찌게 살것소

.우리 달구새끼가 쥐악묵고 깨꼐락해 부렸네

.와따~~ 말도 디질나게 안드려 처 묵네!

.정재 살강에 있는 행가치 좀 뽀아 오니라

.조단 조단 말한께 알아 묵드만

.(속어)좇도 아닌거시 까불고 땡깁께! 맞제!

.주딩이를 뽀겅게 해가꼬 다닝께! 욱목제~!

.지그들끼리만 묵음시롱 나는 안주드랑께

.(속어)지 새끼보다 못한 놈이 어디 있어?

.지땡현(길다란)걸로 가꼬 오니라

.지지리도 못 살드만 요새 빠까번쩍 살드랑께

.징살나게도 말을 안드려 처 묵는그망~ 잉~

.등때기가 근지로웁게 짜끔만 글거조
.떼거위가 쥐악목고 디져부러트랑께
.똥금업시 와가고 그런께 놀랐그만
.맨날 술만 쳐묵고 개지랄하고 다닌당께
.맬겁시 건드러 가고 싹박질을 허드랑께
.
.모 송거야되는데 비가 통 안와분께 죽것그만~
.몰강하게 보인께 놈(남)들이 우습게보고 대들제.
.문딩이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바가치로 풀 좀 담아온나. 풀죽 끼래묵게
.바빠 죽것구만 성이 좀 해부러
.발똥생이(때기)를 확~~ 뽕질러 불량께
.배락마저 디질놈 새끼가 거짓깁도 잘 헨당께
.배름뽕 헛때에서 서답꺼리 각꼬 오니라
.보듬어 준께 애기가 곰방 잠 들드랑께
.부삭에 있는 부지땡이로 막 때래볼드랑께
.분지에 있는 오짐 좀 칙간에 가따 부서부러라
.빈뱅 가꼬오면 핀엿 두쪼가리 줄탕께 가꼬와!
.빙신 같은새끼가 나보고 "쪼다"라 그러드랑께
.빙원 의사 선상이 그런디 갠찾다 그러네
.빠다지 쇠때가 뽕시가저 부러트네~ 염빙할~~
.뽕기칠 다 허고 참샘이로 모욕 가꼬나?
.뽕짜와서 꺾지근하게 앉아 부러
.뿌락때기 소가 꼬뽕이를 찢라부러트네
.뽕아리가 빙이 걸려가고 느작바리 없시 크그만

자료출처 : 전라도 사투리

.가만 있는사람 맬겁시 건드냐.
.개코도 모름시로-
.겁나게 많은세월 고상했당께
.고 가스나그를 어똥게 해부까이
.고거 살라고 니 반디나 가봤는데
.고거시 우째 낫 개린단 마시
.고라고 항께 채-도 달부다야
.고런것은 적지금이 알아서 챙기야재
.고상헌 보람있게 돈이나 모태랑께.
.공것이 어디 있간디-
.귀싸대기럴 볼라 불재
.그 가시내는 문 일얼해도 각단지게 하둡마

.짠해도 어쩔건가 ! 지 복인디 어쩔수 안 업는가
.짜간헌건 뽕지말고 나도 부러라
.짱똥이 담을라면 다래끼 가고 가그라
.챙이에다 나락 좀 까불러서 포대기에 너크라
.쩌짜~ 모탱이로 돌아 가부시요
.쩌짜에다 모다 나라(저쪽에다 모아 놓아라)
.쪼잔허게 생겨 가고 못 쓰것그만
.초꼬지에 꼬슬름 생긴께 심지를 짜금 내래라
.포돈시 다 했는디 욕만 뒤지게 묵엇네
.핑~ 갓따 와 부러라~
.해그럼판에 소 깔 좀 비어 오니라
.해찰치고 온께 요로쿨 늦게 오제
.헝가치게 찌짜에다 가따 나 부러라
.헝핀업시 뿌시거져 가고 못 쓰게 되부러어
.하꼬방에 있는 오가리 좀 꼬네 오니라
.허짓꺼리 그만허고.. 자빠져 자기나 해!
.허천나게 쳐 묵더니 배때지가 아프다 그러네
.

.씻대를 매느리한테 주고냥께 죽은목숨이나
다름없드랑께-
.시방 간당께.
.시어른말하든 귀신씨나락까먹은소리로
듣는당께.
.시엄시 고시랑거리는소리에 잠 못 잤당께-
.시피 보지마.
.실가리죽 믱에 키어논새끼가 괴기국 바친당께-
.심 달는대로 혀봐야지라이
.싸가지 없능것아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것두 모르나?
.싸살 개깁시다이
.쌀 두가마니는 쪼번 때 꺾 준 오만원으로
같이 해 불세.
.쌔바닥을 내바야.

.그 새끼 싸가지 없능거
.그 자식은 꼬라지가 드러워서
.그대참하요. 빼 조간 뿌라진 거 가꼬
.그때가 신간은 팬했당께.
.그라드라도 참어 사 써
.그란해도 물어 불락했드니-
.글마가 합격 했담서? 굉기한 일이시.
.글먼 자네가 그 돈은 돌려 줄랑가?
.급하니 하지 말고 찬찬히 해야.
.궁께 여그 대박이 누구여?
.궁께 한판 뛰자 이거시여 무시여
.기여,아니여?
.나가 그 가시내 뽀스를 새배부까?
.날마당은 못하고 참참히 해라우.
.날이 개러가꼬 우짜가이.
.내가 무다라 가라?
.내동 아까침에 말 항께.
.넵 두씨요. 강패가 되든 순사가 되든 지 풀짱께
.놈들도 많항께 밥은 조간 낙낙하게 짓그라이
.눈구녕을 엄따 두고 땡기냐?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맞아불었당께.
.느그 엄니가 그러디아?
.느자구 없능거
.니 나랑 담박질 해보까?
.니 말차로 고질로 가쓰면 되얏을 건디
.니 절에 뽀작 앙그고 싶당께
.니넌 이따 해그럼판에 소 꼬집고 오니라
.니는 택도 없다.
.당아 안갔냐.
.대그뺨에 똥 배끼 안 든 놈.
.덱다덱다해두 지난 여름갈을까?
.독으로 대그뺨을 끼래불재
.디아지 잡니라고
.따대기지 말고 저리 가부러야.
.땡개봉거 주서 갖고냐.
.똥금없이 보둬마 부요.
.먼 물겐이 이 모양이까이
.모냥이 뽀시럽드랑께
.몸짓은 재간해두 마음은 바다랑께.
.몸할라 안 조온디 먼 술을.

.새빠지게 키어논께 즈그덜끼리만 쑥닥거리니-
.아가. 상추쌈이나 한 볼태기 허고 가그라
.아까 말할 때 해찰 안부러야재.
.아까 맨치로만 해바야.
.아나 묵어라
.아따 ~ 시한에 뜬금없는 개집머리에
(참 ~ 겨울에 갑작스런 감기에)
.솔찬히 보대께 부렸당께~
(대단히 고생하였다니깐~)
(- 관심이라는 분의 소개)
.아야 그라고 따대기지말어야 징상스럽다이
.아야 기어 아니여?
.아야 무달라고 그라냐.
.아야 무달라고 한바작이나 지고 왔냐?
.아야 뭐 염빙하고 자빠졌냐.
.아야 얼렁얼렁 오랑께
.아야,거시기 그것 갖고 와야.
.아야,너 간헐이 부셨냐?
.아이구,징글징글허게도 더웠지라잉
.암사타내야.
.암시롱 머뭇시물어보겼능가-
.애기가 수말스럽다이.
.애민 사람 잡지 마시오.
.어린이 왔는디 그 가스나그 엉땡이만
딸삭허고 마네이
.어이 대사치니라고 고상했재.
.언능 깨대 안 들고고, 못 하나?
.엄니 보고 자퍼 죽거당께.
.여그 걱정은 지발 허지말고-
.역부러 뽀아봉께.
.오늘저녁 기 개린께 오꺼시오
.오매 눈섭을 꼬실러부렸냐-?
.오매 사삭스렁거.
.오매 우리 강아지 왔냐-
.오매 징한거 호랭이나 안 물어가고
.오매. 저 싸난년 보소
.올랑가 말랑가 으짤랑가-
.와따, 우째 그란다요?
.와따. 새 옷 입응께. 때깁나분다이
.외악 새내끼 쑤당께.
.요로코롬 심들어서 어디 쓰것소?
.우아따. 시평도 널루와야!
.우째 그라고 대아 부렸다냐-.
.울 엄니가 지심 다 매서 가꼬논 것인디
.원채 지양스렁께.
.이리 뽀작 와바야,오매 외그라요.
.인자 조간 갱신 혈만하요 우짜요?
.장꼬방에 도가지가 깨져 부렸네.

.무다, 가부렇다고야?
 .무달라 쓰잘데기없이 이렇걸 갖구 왔소?
 .무담시 찌새봉께.
 .무시 두 개에다가 배추차 들고갈라고?
 .문 구진 일만 요라고 인나싼다냐?
 .문 일이나?
 .배가 이러코롬 불러온디-
 .배름뺍에 있는 햇때에 걸어 부러라
 .보선 신은 차로 뛰어 땡기드랑께
 .불 조간 써라
 .뺨닥지를 탁 썰러볼재. 기냥 똥냐?
 .뺨뺨한거시 키만 꺾정해갔고-
 .사돈 넘말 하네이-
 .살살 달게가꼬 느그 동상 집이 오락하그라이
 .성 언능오랑께 엄니가 날리어.
 .성가는 다 양가?
 .성님은 조간 씨알이 백힐 이약얼 허씨요
 .소개기금이 되아지금 대아부렀당께

.저그 췌간 갔다오요-잉.
 .중께 흘짜궁하고 받데.
 .지시락물로 발씻냐.
 .직가슴장시가 실까리도 풀아야.
 .질 싹놈으로 주쇼.
 .집 꼬라지가 이것이 머여?
 .짜내서 우짜가이.
 .짜자내서 어따 써먹으까이.
 .쩌 아래서부텀 더터가꼬 오니라
 .참말로 요래 갖고는 못살것당께
 .취직해 서울강거 다 종살이인거여-
 .칙칸에 구더리가 무지 많크만.
 .키타 텅기는 사람이 누구여?
 .핑 갔다 오랑께
 .하루점드락 췌빠지고 하다옹께 그것이
 먼소리 라요-
 .하먼이라 지가 안 하고 배긴다요?
 .한피짝에 양거있그라이.
 .할미는 암시랑토 안혀
 .함마니는 몰라두 된당께라우-
 .해남 갈라든 으디로 간다요?
 .먼말인지 몰것다구라우 그람 우짜까이-

자료출처 : : 다음블로그: [내사랑 농업 농촌 농민](#)











전라도 사투리 모음집

블로그 분지골 삼형제길... 땅꼴로~~! <http://blog.daum.net/wwwbudongsan114>

저자 땅골 흑룡띠생

발행일 2012.02.09 17:32:39

 블로그